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The Ecological Variables on Adolescents' Runway Impulse

부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교육팀

팀 장 남 미 경**

동아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 수 이 경 님***

Dept. of Family Education, Busan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Team Manager : Nam Mi-Kyung

Dept. of Home Management, Dong-A Univ.

Professor : Lee, Kyung-Nim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the ecological variables that affect adolescents' runway impulse. For the organisms, self-esteem, impulse control, school achievement and runway experience, for the microsystems, family, school and peer environment, for the mesosystems, family-peer relationships and family-school relationships, and for the exosystem, neighborhood environment were included. The sample consisted of 651 eleventh grade adolescents. Instruments were the Runway Impulse Scale(Nam, 2001) and Index of organisms, microsystems, mesosystems, and exosystem variables. Statistics and methods used for the analysis were Cronbach's alpha, frequency, percentage, t-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Several major results were found from the analysis. First, no sex difference was found in adolescents' runway impulse. Second, runway impulse of male and female adolescents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with runway experience, parental marital conflict, dissatisfactions of school life and exposure to friends with problems behavior but negative correlations with self-esteem, impulse control, school achievement, parental support and supervision, teacher support, family-peer relationships and neighborhood environment. Female adolescents' runway impulse showed negative correlations with family-school relationships. Third, the most important variable predicting male adolescents' runway impulse was exposure to friends with problems behavior, the most important variable for female was self-esteem.

▲주요어(Key Words) : 가출충동(runway impulse), 생태학적 접근(ecological approach), 청소년(adolescents)

I. 서 론

청소년기의 가출은 가출행동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가출행위가 근원이 되어 사회 부적응과 비행 및 범죄를 일으키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출 청소년들의 빈곤한 경제 상황은 폭행, 금품갈취, 절도 등의 생존형 범죄를

야기하며 이들의 불안정한 심리상태는 자살시도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청소년의 가출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가출은 1998년 1만5,316명에서 2000년 1만8,442명으로 정점에 오른 뒤 2001년 1만8,276명, 2003년 1만3,374명까지 감소하다가 2004년 1만6,894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05년에는 1만3,294명, 2007년 1만2,240명으로 나타났다¹⁾. 첫 번째 가출을 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한번 가출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습관적으로 가출을 경험하게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주 저 자 : 남미경 (E-mail : nmk6209@naver.com)

*** 교신저자 : 이경님 (E-mail : knlee@dau.ac.kr)

되므로 미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김향초, 2009). 청소년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서는 가출 행동의 가장 중요한 선행요인인 가출충동을 연구함이 필요하다.

가출충동이란 가출행동을 유발하는 심리내적인 충동을 의미한다. 남영옥(2001)에 의하면 가출충동은 개인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목표지향형, 가족으로부터 버려지거나 내쫓김을 당하는 느낌으로 인한 축출형과 부모와의 갈등 및 긴장을 피해 부모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부모이탈형 충동유형이 포함된다. 청소년기에 느끼는 일시적인 가출충동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각하면 가출행동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남영옥, 2001) 가출충동에 대한 관련변인의 연구는 의의 있다고 본다.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개인, 가정, 학교 및 또래 환경 등의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가출충동을 연구하는데 있어 생태학적 체계 관점은 보다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발달에서 생태학적 체계 이론(Bronfenbrenner, 1979)은 유기체인 인간과 환경, 그리고 이 양자 간의 상호작용을 중심개념으로 하며 유기체와 환경의 특성을 모두 고려한 총체적 시각의 이론이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Shaffer, 1999). 생태학적 접근에 의하면 청소년은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체계 속에서 발달하며 청소년 개인을 이러한 체계의 한 부분으로 보고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박민정, 2002). 따라서 본 연구는 생태학적 관점에 근거하여 유기체 변인과 각각의 체계 변인들이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기체 변인이라 환경이 아닌 개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성 변인을 의미한다.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 특성 변인으로 많은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가출충동과 중요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자아존중감, 충동통제, 학업성적, 가출경험을 선정할 수 있다. 먼저 가출충동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가출충동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배문조·전귀연, 2002). 또한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없는 청소년 보다 전체 자아개념과 하위요인인 일반적 자아개념, 학업 및 성취 자아개념이 낮게 나타났다(김경희 등, 2007). 이처럼 낮은 자아존중감은 가출 청소년들의 대표적인 정서 상태로 본다(김향초, 2009). 또한 충동통제가 결여된 청소년은 즉각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가출이나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남현미, 1999). 가출충동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충동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배문조·전귀연, 2002). 그리고 성적과 관련된 불만이 많은 청소년이 가출충동이 더 높다는 연구(장효경, 1999)와 학업성적압력을 경험할수록 지위비행, 가출, 성비행이 높게 나타남을 보고한 연구(최충옥, 1992)에 의하면 성적이 청소년의 가출충동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가출경험은 가출충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가출청소년의 40%이상이 가출 6회 이상의 가출을 하는 청소년으로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재가출하는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가출이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05). 또한 가출충동은 가출경험이 없는 비 가출청소년보다 가출경험이 있는 가출 청소년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다고 밝혀지고 있다(남영옥, 2001). 이로써 자아존중감, 충동통제, 학교 성적, 가출경험의 청소년 개인특성은 가출충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시체계란 개인에게 가장 가까운 직접적인 환경으로 청소년의 발달은 미시체계내의 인간과 환경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미시체계 변인으로 가정, 학교 및 또래 환경을 선정하였다. 청소년들이 가출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서울 YMCA 청소년쉼터, 1996)를 살펴보면 청소년 가출의 주요 원인의 하나가 가정환경임을 알 수 있다. 많은 연구들에 의해 가정환경 중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족의 심리적 변인으로 부모지지, 부모감독, 부부갈등을 들 수 있다. 가족의 중요한 심리적 자원인 부모로부터의 사랑, 관심, 격려 등의 정서적 지지는 청소년의 바람직한 적응에 도움을 준다. 실제로 부모의 지지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이 부모의 지지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보다 더 잘 적응하고 심리적 부적응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Holahan et al., 1995).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가출충동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다룬 연구는 아니지만 부모의 합리적 지도, 애정적 및 성취지향적 양육태도의 청소년이 가출충동이 낮으며 권위주의적 통제성향과 과보호 성향의 양육태도의 청소년이 가출충동이 높다는 연구(정혜경·안옥희, 1998)를 감안할 때 청소년이 부모지지를 낮게 지각할수록 가출충동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부부관계의 갈등이 많을수록 부모의 자녀양육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커지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부정적인 자녀양육 방법은 부모자녀 관계의 갈등을 심화시켜 자녀의 가출과 같은 부정적인 행동을 야기한다(Webster-Stratton, 1989, 배문조·전귀연, 2002, 재인용). 또한 부모의 부부관계를 좋지 않다고 지각한 청소년들의 가출충동이 높았다고 보고되고 있다(정혜경·안옥희, 2001). 따라서 부모의 부부갈등은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모의 감독은 아동 및 청소년기의 바람직한 행동과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부모가 청소년의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적절히 통제하고 감독할 때 청소년은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적응을 보인다. 반면 부모가 청소년의 잘못된 행동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감독을

1) 최근 청소년의 가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는 현상은 2005년 이후 가출 청소년의 하한 연령이 9세에서 14세로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소홀히 하게 되면 문제행동을 초래하게 된다. 이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감독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김희화, 2003), 부모의 감독이 청소년의 비행에 가장 중요한 예측변인의 하나로 보고되었다(Snyder & DeBono, 1985). 이러한 측면에서 부모의 감독은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학교는 청소년이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비중있는 생활의 장이다. 청소년은 공식적 교육과정외에 비공식적 교육과정(informal curriculum)을 통하여 인지적 문제 해결 기술과 새로운 규범을 획득하고 대인관계 기술을 익히며 사회생활에 필요한 자질을 습득하게 된다(Shaffer, 1999). 학교환경 중 교사는 청소년의 바람직한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인적 자원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교사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격려 및 정서적 지지는 청소년의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사지지와 청소년의 가출충동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없었으나 이와 관련된 연구로 교사와의 애착이 적을수록 가출충동이 높았으며(김중선, 2001) 유사하게 교사와의 관계가 갈등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청소년들의 비행행동이 많았다(이상균, 2000). 따라서 교사지지가 청소년의 가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리라 유추되므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만족하는가는 청소년의 바람직한 발달과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가출 충동을 유발하는 학교 환경의 하나로 청소년이 지각하는 입시와 학교성적을 중요시하는 학교환경이 지적되고 있으며(김중선, 2001; 서울 YMCA, 1996) 학교환경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가출충동의 예측요인으로 나타났고 있다(정혜경·안옥희, 2001). 이러한 연구결과들에 의해 학교불만족은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중요한 예측 요인이 될 수 있다.

청소년기는 가족구성원들과 보내는 시간보다 또래와 더 많이 접촉하며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많을 뿐만 아니라 또래관계의 질에 의해 청소년의 행동과 발달은 중요한 영향을 받는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친구 요인 중 친구의 가출경험은 가장 중요한 또래관계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가출경험이 있는 친구를 가진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가출충동이 높았고(정혜경·안옥희, 2001) 유사하게 비행친구가 많을수록 청소년의 가출경험이 많으며(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홀로 가출하는 경우보다 친구와 함께 가출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손정자, 1998). 따라서 친구의 문제행동에 대한 노출정도는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간체계는 두 번째 환경체계로 가정, 학교, 또래 간의 상호작용 체계로서 미시체계들 간의 연결 혹은 상호관계를 의미한다(Shaffer, 1999). 생태학적 체계변인 중 대표적인 중간체계 변인으로 가정-또래 관계와 가정-학교 관계가 제시되고 있다

(Shaffer, 1999). 부모가 문제행동이 많은 또래와의 관계를 금지하는 경우가 또래와의 교제에 대해 무관심한 경우보다 약물사용이나 폭력적인 행위의 비율이 현저히 낮고(Mounts, 2000, 박민정, 2002, 재인용), 부모가 자녀의 또래 관계에 대해 파악하고 감독하는 경우 비행의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고 본다(Steinberg, 1986). 이들을 감안 할 때 가정-또래관계가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치리라 추측 할 수 있다. 또한 부모와 학교간의 지지적인 관계는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에 도움을 준다. 가정-학교관계와 청소년의 가출충동과의 관련 연구는 아니지만 부모들이 아동의 학교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때 아동의 자신감과 학교생활 적응이 높음을 밝힌 연구(Comel et al., 1994)에 비추어 볼 때 가정-학교관계가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가정과 또래, 가정과 학교와의 관계는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외체계는 청소년이 그 맥락의 부분을 이루거나 적극적인 참여자로 관여하지는 않지만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환경을 의미한다(Shaffer, 1999).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외체계 변인으로 지역사회환경을 들 수 있다. 지역사회는 가정, 학교와 더불어 청소년들의 중요한 생활의 장으로서, 유해업소가 많은 지역사회환경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환경은 청소년들의 충동성을 높이고 통제력을 낮게 하여 가출 및 비행을 초래하게 한다(표갑수, 1980). 이에 관련된 연구로 집 주변 환경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청소년이 학교중도탈락의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김기형, 2006)는 지역사회환경은 청소년의 가출충동과 관련이 있음을 유추하게 한다.

생태학적 모델에서 포함된 거시체계는 본 연구의 대상이 동일한 국가나 사회 내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로서 동일한 가치관의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되므로(박민정, 2002), 본 연구에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이처럼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을 종합하면, 유기체 변인으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충동통제, 학업성적, 가출경험 유무, 미시체계 변인으로 부모지지, 부부갈등, 부모감독, 학교생활불만족, 교사지지, 문제행동친구노출정도, 중간체계 변인으로 가정-또래 관계, 가정-학교 관계, 외체계 변인으로 지역사회환경이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들은 청소년 개인 특성이나 이들 체계변인들의 일부변인들에 국한되어 이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생태학적 접근의 연구가 없었다.

한편 가출 중, 고등학생의 경우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8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딸 키우기 무서운 세상' 국민일보, 2000) 2005년 가출청소년을 성별로 보면 남자 6,195명(46.6%), 여자 7,099명(53.4%)으로 여자 청소년이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청소년백서, 2006) 그 양상이 매우 심각하다. 또한 가출충동의 성별 차이를 밝힌 연구들(이민주, 2001; 정혜경·안옥희, 2001)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관련변인이 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밝힌 연구(허은경·이경남, 2006)를 감안 할 때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관련변인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체계변인이 남학생과 여학생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위에서 지적된 연구의 필요성을 토대로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가출충동이 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청소년 가출충동에 생태학적 관점을 도입하여 유기체 변인과 각각의 체계변인들이 청소년 가출충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가출충동에 대한 이들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여 파악하는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을 이해하고 가출충동을 감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대처방안의 기초 자료가 되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청소년의 가출충동은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청소년의 가출충동과 유기체 변인(자아존중감, 충동통제, 학업성적, 가출경험 유무), 미시체계 변인(부모지지와 감독, 부부갈등, 문제행동친구노출정도, 교사지지, 학교생활불만족), 중간체계 변인(가정-또래관계, 가정-학교관계) 및 외체계(지역사회환경)변인의 관계는 성별로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대한 유기체, 미시체계, 중간체계, 그리고 외체계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성별로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 3개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2학년 학생 651명이다. 이중 남학생이 312명(47.9%), 여학생이 339명(52.1%)이고, 실업계 고등학생 406명(62.4%), 인문계 고등학생 245명(37.6%)이었다. 연구대상을 고등학교 2학년으로 선정한 이유로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 시기는 모든 발달 영역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며 부모, 교사 및 대인관계에서 갈등과 스트레스를 겪으며 학업에서도 많은 심리적 부담을 경험하여 심리적 부적응이 높은 시기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이러한 심리적인 부적응을 많이 경험한다고 보는 고등학교 청소년 중 2학년을 대표학년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청소년 부모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대상 청소년의 아버지 연령은 41~50세가 515명(79.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1세 이상이 120명(18.4%)이었으며, 어머니 연령은 41~50세가 566명(86.9%)으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 학력은 고졸이 301명(46.2%)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졸업 이상이 241명(37.0%)이었으며, 어머니 학력은 고졸이 399명(61.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학졸업 이상이 152명(23.3%)이었다. 아버지 직업은 상공업·서비스업이 272명(41.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무직·기술직이 160명(24.6%)이었으며, 어머니의 취업 유·무는 취업 유 325명(49.9%), 취업 무 322명(49.5%)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소득은 201~300만원이 214명(32.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01~200만원이 145명(22.3%), 301~400만원이 135명(20.7%)으로 나타났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청소년의 가출충동 척도와 유기체 변인, 미시체계 변인, 중간체계 변인 그리고 외체계 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 및 일반적 배경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가출충동

청소년의 가출충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남영옥(2001)이 개발한 청소년 가출충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목표지향형, 축출형, 부모이탈형의 세 요인으로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범위로 평정하게 되어있다. 문항의 예를 들면 목표지향형 충동의 경우 '새로운 체험을 하기 위해 가출하고 싶다', 축출형 충동의 경우 '부모님은 내가 없었으면 한다', 부모이탈형 충동의 경우 '부모님이 나를 힘들게 해서 가출하고 싶다'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하위영역의 점수를 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출충동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86 으로 나타났다.

2) 유기체 변인

(1) 자아존중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박민정(2002)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의 범위로 평정하게 되어있다. 문항의 예를 들면 '대체로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 부정적인 문항은 역 채점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86으로 나타났다.

(2) 충동통제

청소년의 충동통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하영희(2001)가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예를 들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일을 시작한다' 등이 포함된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범위로 평정하게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부정적인 문항은 역 채점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충동통제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80으로 나타났다.

(3) 학업성적

청소년의 학업성적을 측정하기 위하여 평균성적을 8점 범위로 구성하였으며, 역 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이 높음을 의미한다.

(4) 가출경험 유무

청소년의 가출경험 유무를 측정하기 위하여 '가출해본 경험이 있다'와 '가출해본 경험이 없다'에 답하도록 하였으며, 가변인 처리하였다.

3) 미시체계 변인

(1) 가정 환경

① 부모지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미현(1996)이 제작한 척도 중에서 부모지지 문항을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여 재구성하고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각각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예를 들면 '아버지(어머니)께서는 늘 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 주신다' 등이 포함된다. 본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범위로 평정하게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지지가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Cronbach α 는 아버지 .94, 어머니 .95로 나타났다.

② 부부갈등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권영옥과 이정덕(1996)의 부부갈등 척도 중 일부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한 박민정(2002)의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은 다투시는 중에 서로 때린 적이 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의 범위로 평정하게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긍정적인 문항은 역 채점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의 갈등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88로 나타났다.

③ 부모감독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감독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준호와 이동원(1995)이 사용한 부모감독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예를 들면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등이 포함된다. 본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범위로 평정하게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들이 부모감독 수준을 높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89로 나타났다.

(2) 학교 환경

① 교사지지

청소년이 지각한 교사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미현(1996)이 제작한 척도 중에서 교사지지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예를 들면 '선생님은 늘 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 주신다' 등이 포함된다. 본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범위로 평정하게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의 지지가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96으로 나타났다.

② 학교생활불만족

청소년의 학교생활불만족을 측정하기 위하여 안창규 등(1995)의 척도를 권윤아(1997)가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예를 들면 '수업시간이 마치 지옥처럼 느껴진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범위로 평정하게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긍정적인 문항은 역 채점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불만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82로 나타났다.

(3) 또래 환경

① 문제행동친구노출정도

청소년의 문제행동친구노출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전병재(1991)와 정유미와 김득성(1998)의 척도를 남현미(1999)가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예를 들면 친구는 '허락없이 외박하거나 가출한 적이 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전혀 없다' 1점에서 '6명 이상' 5점의 범위로 평정하게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을 하는 친구에게 더 많이 노출되었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86으로 나타났다.

4) 중간체계 변인

(1) 가정-또래 관계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정-또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Mo-unts(2000)의 연구를 참고로 박민정(2002)이 제작한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청소년의 부모와 친구가 어느 정도 친밀한가와 부모와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예를 들면 '부모님은 내 친구를 싫어하신다' 등이 포함된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의 범위로 평정하게 되어있으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 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과 또래와의 관계가 원만한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63으로 나타났다.

(2) 가정-학교 관계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정-학교 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정계숙(1989)이 개발한 척도를 자녀용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와 학교의 관계가 어떠한지와 부모님이 학교일에 관심을 가지는가에 대한 문항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를 들면 '부모님은 담임선생님의 의견이나 조언을 수용하신다' 등이 포함된다. 본 척도는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의 범위로 평정하게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과 학교와의 관계가 원만한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77로 나타났다.

5) 외체계 변인

(1) 지역사회환경

청소년이 지각하는 지역사회환경을 측정하기 위하여 Riner(1998)의 척도를 참고로 하여 박민정(2002)이 변안한 척도를 본 연구에 적절하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청소년 가정의 거주지 환경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예를 들면 '우리집 근처에는 술집 등 유흥업소가 많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원 척도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2문항을 제외한 4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의 범위로 평정하게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부정적인 문항은 역 채점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역사회환경을 긍정적으로 지각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56으로 나타났다.

3. 연구 절차와 자료처리

측정도구의 문항에 대한 이해와 연구절차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산시의 중학교 1개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2학년에 재학 중인 1개 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의 결과 각 측정도구의 문항은 이해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각 변인들의 점수 범위를 살펴본 결과 중학생의 가출충동 점수가 매우 낮았으며, 개인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그리하여 본조사의 대상으로 고등학생을 선정하기로 하였다.

본 조사는 2007년 7월 5일부터 15일까지 부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 3개교에서 2학년의 총 25학급을 임의 표집하여 실시되었다. 본 연구자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과목담당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조사방법을 설명한 후 학생들에게 질문지가 배부되었고, 그 자리에서 회수되었다. 회수된 자료 중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부실 기재된 자료를 제외한 651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으로 통계처리 하였다. 먼저 연구대상 청소년과 부모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문제 1>은 t-검증을, <연구문제 2>는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3>은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검토한 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청소년의 가출충동의 성에 따른 차이

청소년의 가출충동이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가출충동에 대한 성별 t-검증을 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먼저 <표 1>에 의해 청소년의 가출충동의 경향을 살펴보면 남학생(M=2.02), 여학생(M=2.06)으로 청소년의 가출충동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1>에 의하면 청소년의 가출충동은 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청소년의 가출충동은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청소년의 성에 따른 가출충동의 차이

성 별	가출충동	M(SD)	t값
남학생		2.02(.65)	-.665
여학생		2.06(.66)	

<표 2> 남학생의 가출충동과 생태학적 체계 변인의 관계

유기체 변인				미시체계 변인						중간체계변인		외체계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306***	-.226***	-.145*	.298***	-.243***	-.305***	.243***	-.169**	-.167**	.393***	.316***	-.274***	-.040	-.338***

가변인처리 : 가출경험 무=0, 가출경험 유=1

1. 자아존중감 2. 충동통제 3. 학업성적 4. 가출경험 유무 5. 아버지지지 6. 어머니지지 7. 부부갈등 8. 부모감독 9. 교사지지 10. 학교생활불만족 11. 문제행동친구노출정도 12. 가정-또래관계 13. 가정-학교관계 14. 지역사회환경

*p<.05, **p<.01, ***p<.001

<표 3> 여학생의 가출충동과 생태학적 체계 변인의 관계

유기체 변인				미시체계 변인						중간체계변인		외체계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387***	-.330***	-.108*	.349***	-.334***	-.360***	.387***	-.251***	-.120*	.361***	.219***	-.351***	-.138*	-.280***

*p<.05, **p<.01, ***p<.001

가변인처리 : 가출경험 무=0, 가출경험 유=1

1. 자아존중감 2. 충동통제 3. 학업성적 4. 가출경험 유무 5. 아버지지지 6. 어머니지지 7. 부부갈등 8. 부모감독 9. 교사지지 10. 학교생활불만족 11. 문제행동친구노출정도 12. 가정-또래관계 13. 가정-학교관계 14. 지역사회환경

2.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가출충동과 유기체, 미시체계, 중간체계 및 외체계 변인의 관계

1) 남학생

남학생의 가출충동과 유기체, 미시체계, 중간체계 및 외체계 변인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표 2>에 의하여 남학생의 가출충동과 유기체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출경험 유무($r=.298, p<.001$)와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r=-.306, p<.001$), 충동통제($r=-.226, p<.001$), 학업성적($r=-.145, p<.05$)과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즉, 남학생의 가출충동은 자아존중감, 충동통제 및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가출경험이 있는 학생이 가출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표 2>에 의하여 남학생의 가출충동과 미시체계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부갈등($r=.243, p<.001$), 학교생활불만족($r=.393, p<.001$), 문제행동친구노출정도($r=.316, p<.001$)와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며, 아버지지지($r=-.243, p<.001$), 어머니지지($r=-.305, p<.001$), 부모감독($r=-.169, p<.01$), 교사지지($r=-.167, p<.01$)와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즉, 남학생의 가출충동은 부부갈등, 학교생활불만족과 문제행동친구노출정도가 높을수록, 아버지지지, 어머니지지, 부모감독 및 교사지지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 2>에 의하여 남학생의 가출충동과 중간체계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정-또래관계($r=-.274, p<.001$)와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즉, 남학생의 가출충동은 가정과 또래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남학생의 경우 가정과 학교와의 관계와 가출충동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 2>에 의하여 남학생의 가출충동과 외체계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지역사회환경($r=-.338, p<.001$)과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즉, 남학생은 지역사회환경을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가출충동이 높게 나타났다.

2) 여학생

여학생의 가출충동과 유기체, 미시체계, 중간체계 및 외체계 변인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표 3>에 의하여 여학생의 가출충동과 유기체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출경험 유무($r=.349, p<.001$)와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r=-.387, p<.001$), 충동통제($r=-.330, p<.001$), 학업성적($r=-.108, p<.05$)과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즉, 여학생의 가출충동은 자아존중감, 충동통제 및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가출경험이 있는 학생이 가출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표 3>에 의하여 여학생의 가출충동과 미시체계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부갈등($r=.387, p<.001$), 학교생활불만족($r=.361, p<.001$), 문제행동친구노출정도($r=.219, p<.001$)와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며, 아버지지지($r=-.334, p<.001$), 어머니지지($r=-.360, p<.001$), 부모감독($r=-.251, p<.001$), 교사지지($r=-.120, p<.05$)와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즉, 여학생의 가출충동은 부부갈등, 학교생활불만족과 문제행동친구노출정도가 높을수록, 아버지지지, 어머니지지, 부모감독 및 교사지지가 낮

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 3>에 의하여 여학생의 가출충동과 중간체계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정-또래관계($r=-.351, p<.001$)와 부적상관이 나타났고, 가정-학교관계($r=-.138, p<.05$)와도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즉, 여학생의 가출충동은 가정과 또래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수록, 가정과 학교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표 3>에 의하여 여학생의 가출충동과 외체계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지역사회환경($r=-.280, p<.001$)과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즉, 여학생은 지역사회환경을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가출충동이 높게 나타났다.

3.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유기체 변인, 미시체계 변인, 중간체계 변인 및 외체계 변인이 가출충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회귀분석에 앞서 회귀식의 기본가정을 충족시킬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여 각 독립변인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의하면 각 독립변인 간 상관계수가 남학생은 .49, 여학생 .56을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중공선성의

위반여부를 회귀분석에 투입된 각 변수의 VIF값을 통해 살펴본 결과 남학생 1.648, 여학생 1.82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존재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1) 남학생

남학생의 가출충동에 대한 유기체 변인, 미시체계 변인, 중간체계 변인 및 외체계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체계 변인들을 독립변인 군으로 묶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의하면 1단계에서 유기체 변인인 자아존중감, 충동통제, 학업성적, 가출경험 유무가 남학생의 가출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인은 가출경험 유무($\beta=.280, p<.001$), 자아존중감($\beta=-.240, p<.001$), 충동통제($\beta=-.146, p<.01$)로 나타났으며, 투입된 독립변인은 남학생의 가출충동을 19.2% 설명하였다. 2단계에서는 미시체계변인이 남학생의 가출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1단계 회귀분석 모델에 아버지지지, 어머니지지, 부부갈등, 부모감독, 교사지지, 학교생활불만족, 문제행동친구노출정도를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단계 회귀분석의 결과, 문제행동친구노출정도($\beta=.247, p<.001$), 학교생활불만족($\beta=.191, p<.01$), 어머니지지($\beta=-.178, p<.01$)가 남학생의 가출충동에

<표 4> 주요변인간의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

남/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M(SD)
1		.376***	.007	-.116*	.222***	.298***	-.297***	.149**	.159**	-.347***	.036	.362***	.120*	.209***	2.87(.52)
2	.321***		.134*	-.227***	.209***	.213***	-.251***	.171**	.249***	-.399***	-.126*	.243***	.176**	.140**	2.94(.54)
3	.187**	.163**		-.169**	.023	.089	-.082	.074	-.082	-.030	-.157**	.131*	.043	.001	5.41(1.84)
4	-.059	-.003	-.221***		-.208***	-.229***	.332***	-.135*	-.067	.259***	.373***	-.201***	-.148**	-.202***	.17(.38)
5	.251***	.274***	.128*	-.100		.459***	-.463***	.409***	.305***	-.310***	-.134*	.323***	.303***	.243***	3.09(.98)
6	.306***	.143*	.128*	-.085	.432***		-.397***	.426***	.241***	-.271***	-.107*	.558***	.299***	.201***	3.83(.92)
7	-.189**	-.130*	-.082	.233***	-.371***	-.339***		-.301***	-.223***	.349***	.158**	-.369***	-.247***	-.269***	2.07(.64)
8	.110	.199***	.065	-.027	.278***	.314***	-.185**		.250***	-.231***	-.192***	.464***	.266***	.226***	3.37(.90)
9	.201***	.134*	.125*	-.096	.337***	.287***	-.122*	.296***		-.385***	-.064	.126*	.327***	.107*	2.29(.91)
10	-.278***	-.239***	-.202***	.266***	-.199***	-.187**	.246***	-.238***	-.261***		.230***	-.287***	-.314***	-.251***	2.76(.88)
11	.075	-.042	-.190**	.332***	.046	-.001	.111	-.213***	-.099	.277***		-.041	-.101	-.245***	2.05(.84)
12	.294***	.188**	.037	-.034	.382***	.481***	-.342***	.446***	.226***	-.231***	-.068		.142**	.175**	2.99(.47)
13	.074	.122*	.046	-.036	.325***	.178**	-.192**	.195**	.332***	-.131*	-.070	.233***		.117*	1.87(.62)
14	.061	.061	.107	-.352***	.079	.157**	-.254***	.114*	-.014	-.247***	-.383***	.135*	.079		3.15(.48)
M(SD)	2.87(.50)	3.10(.57)	5.48(1.89)	.21(.41)	2.98(.96)	3.51(.88)	2.15(.63)	3.00(.97)	2.42(.89)	2.87(.91)	2.22(1.01)	2.81(.48)	1.93(.64)	3.00(.62)	

가변인처리 : 가출경험 무=0, 가출경험 유=1

1. 자아존중감 2. 충동통제 3. 학업성적 4. 가출경험유무 5. 아버지지지 6. 어머니지지 7. 부부갈등 8. 부모감독 9. 교사지지 10. 학교생활 불만족 11. 문제행동친구노출정도 12. 가정-또래관계 13. 가정-학교관계 14. 지역사회환경

* $p<.05$ ** $p<.01$ *** $p<.001$

<표 5> 남학생의 가출충동에 대한 유기체 변인, 미시체계 변인, 중간체계 변인 및 외체계 변인의 위계적 회귀분석

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B	β	B	β	B	β	B	β
유기체변인								
자아존중감	-.406	-.240***	-.302	-.178**	-.275	-.162**	-.272	-.160**
충동통제	-.168	-.146**	-.095	-.082	-.098	-.085	-.096	-.084
학업성적	-.067	-.015	.210	.046	.192	.043	.177	.039
가출경험 유무	5.819	.280***	2.942	.141**	2.951	.142**	2.331	.112*
미시체계변인								
아버지지지			-.070	-.079	-.079	-.090	-.081	-.092
어머니지지			-.171	-.178**	-.149	-.155**	-.134	-.139*
부부갈등			.032	.016	.026	.013	-.007	-.003
부모감독			.085	.038	.128	.058	.128	.058
교사지지			.029	.030	.005	.006	-.015	-.015
학교생활불만족			.299	.191**	.294	.188**	.274	.175**
문제행동친구노출정도			.346	.247***	.349	.250***	.292	.209***
중간체계								
가정-또래관계					-.245	-.083	-.238	-.081
가정-학교관계					.312	.093	.332	.100
외체계								
지역사회환경							-.481	-.140*
상수	43.825		33.137		33.988		41.142	
ΔR ²			.136		.010		.015	
R ²	.192		.328***		.338		.353	
F	18.203***		13.293		11.712***		11.558***	

가변인처리 : 가출경험 무=0, 가출경험 유=1

*p<.05, **p<.01, ***p<.001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과 가출경험은 여전히 유의 하였다.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남학생의 가출충동을 32.8% 설명하였으며, 1단계보다 13.6% 증가하였다. 3단계에서는 중간체계 변인이 남학생의 가출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2단계 회귀분석 모델에 가정-또래관계, 가정-학교관계를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중간체계 변인이 남학생의 가출충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 어머니지지, 학교생활불만족, 문제행동친구노출정도는 여전히 유의 하였다. 3단계에서 투입된 변인들은 남학생의 가출충동의 33.8% 설명하였다. 회귀분석 마지막 4단계에서는 외체계 변인이 남학생의 가출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3단계 회귀분석 모델에 지역사회환경을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역사회환경(β=-.140, p<.05)이 남학생의 가출충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문제행동친구노출정도, 학교생활불만족, 자아존중감, 어머니지지와 가출경험유무는 여전히 유의하였다. 투입된 변인들은 35.3% 설명하여 3단계보다 1.5%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남학생의 가출충동에 미시체계 변인인 문제행동친구노출정도가 가장 중요한 예측변인이며, 학교생활불만

족, 자아존중감, 지역사회환경, 어머니지지, 가출경험 순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여학생

여학생의 가출충동에 대한 유기체 변인, 미시체계 변인, 중간체계 변인 및 외체계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체계 변인들을 독립변인 군으로 묶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 의하면 1단계에서 유기체 변인인 자아존중감, 충동통제, 학업성적, 가출경험 유무가 여학생의 가출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인은 자아존중감(β=-.298, p<.001), 가출경험 유무(β=.274, p<.001), 충동통제(β=-.151, p<.01)로 나타났으며, 투입된 독립변인은 여학생의 가출충동을 26.5% 설명하였다. 2단계에서는 미시체계변인이 여학생의 가출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1단계 회귀분석 모델에 아버지지지, 어머니지지, 부부갈등, 부모감독, 교사지지, 학교생활불만족, 문제행동친구노출정도를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단계 회귀분석의 결과, 어머니지지(β=-.116, p<.05), 학교생활불만족(β=.113, p<.05), 부부갈등(β=.111, p<.05)이 여학생의 가출충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표 6> 여학생의 가출충동에 대한 유기체 변인, 미시체계 변인, 중간체계 변인 및 외체계 변인의 위계적 회귀분석

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B	β	B	β	B	β	B	β
유기체변인								
자아존중감	-.497	-.298***	-.359	-.215***	-.338	-.203***	-.321	-.192***
충동통제	-.187	-.151**	-.123	-.099	-.122	-.098	-.124	-.100
학업성적	-.182	-.039	-.086	-.018	-.075	-.016	-.096	-.020
가출경험 유무	6.271	.274***	3.578	.156**	3.551	.155**	3.463	.151**
미시체계변인								
아버지지지			-.082	-.093	-.088	-.100	-.083	-.094
어머니지지			-.109	-.116*	-.095	-.101	-.094	-.099
부부갈등			.215	.111*	.208	.108	.192	.099
부모감독			-.091	-.038	-.061	-.026	-.042	-.018
교사지지			.083	.087	.068	.071	.065	.069
학교생활불만족			.185	.113*	.190	.116*	.177	.108
문제행동친구노출정도			.143	.083	.152	.088	.128	.074
중간체계								
가정-또래관계					-.181	-.059	-.186	-.061
가정-학교관계					.182	.052	.177	.051
외체계								
지역사회환경							-.352	-.079
상수	48.070		39.676		40.355		44.963	
ΔR ²			.081		.005		.005	
R ²	.265		.346		.351		.356	
F	30.061***		15.735***		13.500***		12.785***	

가변인처리 : 가출경험 무=0, 가출경험 유=1

*p<.05, **p<.01, ***p<.001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과 가출경험유무는 여저히 유의하였다. 2단계에서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여학생의 가출충동을 34.6% 설명하였으며, 1단계보다 8.1% 증가하였다. 3단계에서는 중간체계 변인이 여학생의 가출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2단계 회귀분석 모델에 가정-또래관계, 가정-학교관계를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중간체계 변인이 여학생의 가출충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 가출경험유무, 학교생활불만족은 여전히 유의하였다. 3단계에서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여학생의 가출충동의 35.1% 설명하였다. 회귀분석 마지막 4단계에서는 외체계 변인이 여학생의 가출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3단계 회귀분석 모델에 지역사회환경을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역사회환경은 여학생의 가출충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과 가출경험유무는 여전히 유의하였다. 4단계에서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여학생의 가출충동을 35.6% 설명하였다.

결과적으로 여학생의 가출충동에 유기체 변인인 자아존중감이 가장 중요한 예측변인이며, 가출경험 또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고등학교 2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가출충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와 가출충동에 대한 유기체(자아존중감, 충동통제, 학업성적, 가출경험 유무), 미시체계(아버지지지, 어머니지지, 부부갈등, 부모감독, 교사지지, 학교생활불만족, 문제행동친구노출정도), 중간체계(가정-또래관계, 가정-학교관계), 외체계(지역사회환경)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들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가출충동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청소년의 가출충동은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가출충동은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조경호, 2004; 최선희, 2004)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가출충동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이민주, 2002),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높다는 연구(정혜경·안옥희, 2001)도 보고되고 있어 청소년기 가출충동의 성별에 대한 결론을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는 후속연구가 좀 더 보완되어 이에 대한 결과가

일반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남학생과 여학생의 가출충동은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출충동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의 청소년보다 자아존중감이 낮다는 연구(배문조·전귀연, 2002),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자아개념이 낮다는 연구(김경희 등, 2007)와 대체로 일치하였다. 이로써 낮은 자아존중감이 가출충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가출충동은 충동통제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출충동이 높은 집단의 청소년이 낮은 집단보다 충동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배문조·전귀연, 2002), 충동조절 부족 등의 경계선 성격 특성이 클수록 가출충동이 높다는 연구(남영옥, 2001)와 일치하였다. 이는 충동통제가 낮을수록 즉흥적인 가출충동 욕구를 조절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충동통제가 낮은 청소년은 높은 청소년보다 가출충동이 높다고 본다. 그리고 남학생과 여학생의 가출충동은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적과 관련된 불만이 가출충동 경험과 관련이 있다고 나타난 연구(장효경, 1999)와 일치하였다. 이는 학업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함께 부모의 학업성적에 대한 기대로 인한 심리적 압박에 의한 부담이 가출충동을 야기하지 않나 생각된다. 그러나 학업성적이 청소년의 가출충동과 관련이 없다는 연구(정혜경·안옥희, 2001)도 있어 성적과 가출충동에 대한 결론은 신중을 기하여야리라 본다. 그리고 남학생과 여학생의 가출충동은 가출경험이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출경험이 없는 청소년보다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가출충동이 더 높다는 연구(남영옥, 2001)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들의 일치하는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가출충동이 더 높으며 이는 언제든지 다시 가출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가출충동은 부모지지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적을수록 가출충동이 높다는 연구(김중선, 2001), 부모의 자녀에 대한 낮은 애착이 청소년의 가출충동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가출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박용선, 1998)와 일치한다. 이는 부모로부터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고 정서적 지지를 낮게 지각하는 청소년이 가족과 부모로부터 소외되고 축출되고 있다는 느낌과 동시에 가출충동도 높아지지 않나 유추된다. 이는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감소하기 위해서는 자녀에 대한 충분한 부모지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가출충동은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 청소년의 가출충동 경험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정혜경·안옥희, 2002)와 일치한다. 이는 부부갈등이 청소년기의 자녀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족안정감에 대한 불안을 느끼게 하여 가출충동을 야기하기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성별

에 관계없이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가출충동이 높다고 본다. 그리고 남학생과 여학생의 가출충동은 부모감독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감독이 소홀한 청소년이 더 많은 문제행동을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김준호·김순형, 1995)와 부모의 적절한 감독이 청소년의 전반적인 문제행동을 감소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Barnes & Farrell, 1992)와 맥을 같이 하였다. 이는 부모의 적절한 감독이 청소년의 가출을 비롯한 반사회적 행동을 중재하고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나아가 청소년기 자녀의 가출충동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가출충동은 교사지지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와의 애착이 적을수록 가출충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중선, 2001)와 거의 일치하였으며 교사지지가 청소년 행동문제와 부적관계가 있다는 연구(이경주, 1997)와 청소년이 교사와의 관계가 갈등적이라고 지각할수록 더 많은 비행행동과 관련 있다는 연구(이상근, 2000)와 유사하였다. 이는 청소년들의 가출충동은 교사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가출 후 학교로 돌아온 학생을 비행청소년으로 낙인 시키기보다 가출의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사의 관심과 지지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또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가출충동은 학교생활불만족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학교환경 불만족은 학생들의 가출충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장효경, 1999)와 일치하였으며 학교환경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가출충동의 예측요인으로 나타난 연구(정혜경·안옥희, 2002)와도 유사하였다. 따라서 학교생활불만족은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남학생과 여학생의 가출충동은 문제행동친구노출정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에 친구집단의 문제행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 연구(허은경·이경남, 2006), 문제행동의 경험이 많은 친구가 많을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많다는 연구(정유미, 1997)와 유사하였다. 이로써 청소년의 문제행동친구노출정도는 가출충동을 높이는 위험요인임을 알 수 있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가출충동은 가정과 또래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문제행동이 있는 또래와의 관계를 통제하는 부모의 자녀가 폭력적 행동과 문제행동의 비율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연구(Mounts, 2000, 박민정, 2002, 재인용)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정과 또래의 관계가 청소년기 자녀의 가출충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여학생의 경우 가정과 학교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수록 가출충동이 높게 나타났으나 남학생의 경우는 가정과 학교와의 관계와 가출충동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가정과 학교와의 관계가 원만하다고 지각하는 경우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경님, 2008),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중간체계 변인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박민정, 2002)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그런데 가정과 학교의 관계가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을 구분하여 살펴본 연구는 없으므로 그 결과의 일반화는 어렵다고 본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가출충동과 가정과 학교의 관계를 살펴보는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 이들 간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가출충동은 지역사회환경이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사회환경과 청소년의 가출충동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없으나 거주지역 환경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청소년의 학교중도 탈락이 높다는 연구(김기형, 2006)와 유사하였다. 이로써 유해한 지역사회환경은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기체, 미시체계, 중간체계 및 외체계 변인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의 가출충동에 대한 관련변인의 상대적 중요성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남학생의 가출충동에 또래 관련 미시체계 변인인 문제행동친구노출정도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친구집단의 문제행동이 가장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난 연구(허은경·이경님, 2006)와 유사하였다. 이로써 남학생의 가출충동에 미시체계 중 친구변인인 문제행동친구노출정도가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는 청소년 시기의 친구관계는 대인관계 중 가장 밀착된 관계이며 청소년들은 또래집단의 행동에 동조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정옥분, 2002). 따라서 친구의 행동은 청소년 상호 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모델이 되어 그대로 학습되기 때문에 문제행동이 많은 친구들에 노출되는 정도가 높을수록 가출충동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친구의 문제행동노출이 더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난 결과는 여아들에 비해 남아들은 집단을 이루어 친구를 사귀는 경향이 많기(정옥분, 2002)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는데 있어서 친구집단을 활용한 상담이나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며 이러한 효과는 남학생의 경우 더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자아존중감은 여학생의 가출충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감이 없으며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낮은 가치감을 보이는 여학생이 가출충동에 취약함을 의미한다. 또한 낮은 자아존중감은 남학생의 가출충동에도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관계없이 청소년의 가출충동을 야기 시키는 중요한 위험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낮은 자아존중감이 가출 청소년의 전형적인 현상임(김향초, 2009)을 지지 하며 가출충동의 감소와 예방에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

그램이나 지도는 효과적인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가출경험은 성별에 관계없이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출경험이 남학생과 여학생의 가출충동에 공통적으로 중요한 위험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출후 청소년이 가족으로 다시 돌아왔더라도 가출충동은 여전히 높을 수 있음을 추측하게 하며 가출청소년의 재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 요인을 분석하여 해결하여야함을 시사한다. 그런데 남학생의 경우 가출충동에 어머니지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난 결과는 남학생의 가출충동의 감소와 예방에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는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또한 학교생활불만족과 지역사회환경이 남학생의 가출충동에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난 결과는 학교생활불만족이나 유해한 지역사회환경은 남학생의 가출충동을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 요인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의 가출충동은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차이가 없다. 또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가출충동에 가출경험, 부모의 부부갈등, 학교생활불만족, 문제행동친구노출정도, 유해한 지역사회환경은 부정적 요인이나 자아존중감, 충동통제 및 학업 성적과 아버지지지, 어머니지지, 부모감독 및 교사지지, 원만한 가정과 또래관계 및 학교관계는 긍정적 요인이다. 이중 문제행동친구노출정도는 남학생의 가출충동에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이다. 낮은 자아존중감은 여학생의 가출정도에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일 뿐만 아니라 남학생의 가출충동에도 중요한 예측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출경험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가출충동에 공통적으로 중요한 위험한 요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요인과 함께 학교생활불만족, 지역사회환경 및 어머니지지는 남학생의 가출충동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중 심리적 변인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가족구조요인, 대중매체 등 선행연구에서 제기되었던 모든 요인을 다루지는 못하였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좀 더 보완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에 대한 학교 계열별 차이를 분석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가출과 같은 문제행동은 실업계와 인문계 고등학교 간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는 심도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대한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에 대한 결과의 일반화를 위하여 가출이나 가출충동에 대한 성별 차이에 관하여 좀 더 정밀하고 심도 있는 분석을 다루는 많은 후속연구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본다. 넷째, 본 연구는 청소년의 유기체, 미시체계, 중간체계 및 외체계 변인이 어떻게 함께 작용하여 청소년의 가출충동을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경로는 밝히

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대한 관련 변인의 관계 및 그 경로를 탐색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국민일보(2000). 딸 키우기 무서운 세상. 2000. 10. 24. 25면.
- 권영옥 · 이정덕(1996).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CPIC)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18(10), 65-79.
- 권문아(1997). 실업계 여고생의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및 가출유형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희 · 김지수 · 김미진 · 정승교(2007). 청소년의 자아개념, 자각추구특성 및 가출경험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6(4), 348-356.
- 김기형(2006). 실업계 고등학교의 중도탈락 요인분석.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준호 · 김순형(1995). *가정환경과 청소년비행*.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 · 이동원(1996). *한국의 청소년 비행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중선(2001).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전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향초(2009). *가출청소년의 이해와 상담*. 서울: 학지사.
- 김희화(2003). 청소년의 문제행동 및 인터넷 비행에 대한 모감독과 심리적통제의 영향. *청소년학연구*, 11(3), 133-153.
- 남영옥(2001). 청소년의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경계선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8(2), 143-172.
- 남현미(1999).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친구특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민정(2002).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용선(1998). *청소년 가출의 원인에 관한 연구*. 협성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문조 · 전귀연(2002). *청소년의 가출충동과 관련된 특성연구: 개인 · 가족 · 학교환경 · 또래관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0(1), 23-35.
- 서울 YMCA 청소년쉼터(1996). *청소년 가출에 대한 설문조사*.
- 손정자(1998). *고교생의 가출과정과 생활에 대한 분석 연구*.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창규 · 문선화 · 전윤식(1995). *가출청소년과 학교관리체계*. 서울: 집문당.
- 이경남(2008).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211-224.
- 이경주(1997).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및 행동문제*.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민주(2002). *가족관계 및 가족갈등이 청소년 가출충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균(2000). *청소년의 학교비행에 대한 생태체계적 영향요인*. *사회복지연구*, 15, 109-132.
- 장효경(1999). *청소년 가출과 가출충동에 관한 연구-대전지역 중 ·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옥분(2002).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정계숙(1989). *도시와 농촌 아동의 학습준비도를 결정하는 생태학적 변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혜경 · 안옥희(2001).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아동간호학회지*, 7(4), 483-493.
- 전병재(1991). *청소년 친구집단과 비행 간의 상관성 연구-낙인 과정 설명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정유미 · 김득성(1998). *청소년의 환경적 변인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6(3), 31-45.
- 조경호(2004).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미치는 환경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선희(2004). *청소년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가출충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순천시를 중심으로*. 한일장신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충욱(1992). *학교와 청소년 문제-입시위주교육의 문제를 중심으로*. *청소년 문제론*.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 표갑수(1980). *아동의 가출원인에 관한 연구-가정환경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14, 25-58.
- 하영희(2001). *청소년의 도덕행동에 대한 관련변인 연구-권장행동과 금지행동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2005). *가출청소년쉼터 실태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8). *가출·노숙청소년 현황 및 정부 대책방향*.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3). *청소년의 가출과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은경 · 이경남(2006). *청소년의 개인, 가족, 친구 및 학교 변인이 규범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4(4), 111-122.
- Barnes, G. M. & Farrell, M. P.(1992). Parental support and control as predictors of adolescent drinking, delinquency,

- and related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4), 763-776.
- Bronfenbrenner, U.(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onnel, J. P., Spencer, M. B., & Aber, J. L.(1994). Education risk and resilience in African-American youth : Context, self, action, and outcomes in school. *Child Development*, 65, 493-506.
- Holahan, C. J., Valentiner, D. P. & Moos, R. H.(1995). Parental support, coping strategie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 An integrative model with late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4, 633-648.
- Mounts, N. S.(2000). *Parental management of adolescent peer relationship: What are its effects on friend selection?* In Kerns, K. A., Contretras, J. M., & Neal-Barnett, A. M.(Eds.). *Family and peers: Linking two social worlds*. (pp.169-194) Westport, praeger.
- Riner, M. E. K.(1998). *Social ecology model of adolescent interpersonal violence prevention*. Indiana University.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 Shaffer, D.(1999). *Developmental Psychology(5th)*. *Childhood & Adolescence*. Brooks/Cole.
- Snyder. M. & DeBono, K. G.(1985). Appeals to Image and Claims about Quality: Understanding the Psychology of Advertis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586-597.
- Steinberg, L.(1986). Latchkey children and susceptibility to peer pressure: An ecologic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433-439.
- Webster-Stratton, C.(1989). "The relationship of Marital Support, Conflict and Divorce to Parent Perceptions, Behaviors, and Childhood Conduct Problem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2). 417-430.

접수일 : 2009년 04월 30일

심사일 : 2009년 05월 25일

심사완료일 : 2009년 07월 02일